

UR 타결 20년 농업 현실 진단 토론회

- 한농연 창립 26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 마케팅보드 이행” 등의 정책 과제가 제시
 -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하여, “UR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
 - 제1주제를 맡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UR 타결 20년 후 전세계의 거대 농기업들의 이윤극대화의 이면에는, 가족농의 붕괴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농과 농산물 소비자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진단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년 동안, 농업 관련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였고, FTA와 TPP 협상으로 농업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농정을 평가
 - 제2주제를 맡은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지역협동생활경제를 통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의 법제화와 함께 품목별 마케팅보드 구축을 통한 농업인들의 결집을 통한 시장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회생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화두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임

한농연 지역연합회의 우수 사례 소개

- 한농연안동시연합회가 직영하는 정육점형 한우 식당 “한우타운” 11일 개점...안동시연합회 회원들의 숙원사업을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지원한 사례로 주목
 - 한농연안동시연합회(회장 김현일)는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수) 12시 안동시 안막동 청머리재 소재 “한우타운” 개점식을 개최
 - 본 사업은 농업인단체 자력기반구축사업으로 농업인단체의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활성화로 자생력 강화 및 농업인 자금심 고취를 목적으로 도비 및 시비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억 4,300만원을 들여 정육점, 한우식당(연면적 330㎡)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문을 열게 된 것임
 - “한우타운” 사업을 통해 안동시 관내 한농연 회원들이 직접 키운 한우를 잡아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일관 체제로 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임
 - 이번 “한우타운” 개장·운영은 한농연안동시연합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기르고 어려운 지역 축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임

- 한농연고성군연합회, 교육발전기금 기탁
 - 한농연(경상남도)고성군연합회(회장 손상재)는, 회원들이 휴경논을 경작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500만원을 조성하여,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
 - 손상재 회장은 “농부의 정성과 땀이 깃든 장학금이 잘 전달돼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한농연창원시연합회 산하 읍면동회, 지역사회를 위한 기탁 활동 전개
 - 한농연창원시연합회 구산면회(회장 박득진)는, 저수지 풀베기 사업으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쌀 40포대를 마련해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며 지난 5일 구산면사무소에 기탁
 - 한농연창원시연합회 진해지회(회장 김명기)는 진해구 웅천동 배추 포장에서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500포기를 수확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에 써달라며 지난 2일 진해자원봉사센터에 기탁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 대비 “농어민 출마자 교육” 성황리에 마쳐

-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주관 “농어민 출마자 교육” 성황리에 종료
 - 한농연중앙연합회(대외협력실)와 한국농어민신문(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12월 5일(목)~6일(금)간 한국농업연수원에서 개최한 “농어민 출마자 교육”에 지방선거와 2015년 조합장 동시 선거 등에 관심이 높은 농업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종료되었음
 - 이번 교육에서는 출마의사가 있는 농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지방농정 및 협동조합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한 후보자의 자세와 실무적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음
 -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의와 특징 ▲과학적 선거 및 홍보전략 ▲전략수립 및 유권자 접촉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전문적 내용의 강의를 실시돼, 출마자들에게 큰 도움을 줌
 - 교육생들은 “실사구시적인 교육이었다. 출마에 대한 결심만 했지 무엇부터 할 것인지 막연했는데, 이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다”고 만족하였음
 - 아울러 “농촌 지역의 경우 후보의 자질과 역량보다는 지연과 학연, 혈연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선거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게 됐고, 주민들이 신뢰하는 리더의 자세, 현 시기 농정개혁의 과제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